

옥소 권섭의 세계인식과 영남관

정 우 락*

- I. 머리말
- II. 권섭의 삶과 그 특징
- III. 권섭의 세계인식: 주체적 개방성
- IV. 권섭의 영남관: 기령학적 회통성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玉所 權燮(1671-1759)의 세계인식과 영남관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권섭은 용주와 재상의 집에서 경화사족의 문화풍토 속에 성장하였지만, 기사환국과 신임사화로 커다란 좌절을 맞는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볼 때, 그는 대체로 현실순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록벽과 기행벽을 갖고 산수에 탐닉하였다. 현실정치가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의 주요 관심사는 오히려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의 취미생활에 있었다.

권섭의 세계인식은 주체적 개방성으로 요약된다. 도통론과 화이론으로 대변되는 그의 주체성은 자기 세계 속으로 매몰되지 않고 사상적으로는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jwl0412@knu.ac.kr

유불도가 상호 공존하고 신분적으로는 중인이나 천인도 포용하였다. 또한 권섭의 작품에는 기호학과 영남학이 서로 소통하는 기령학적 회통성 또한 잘 나타난다. 그의 영남관은 이로써 확인이 가능하다. 기호학이 영남학에 뿌리를 두지만 그 완성은 결국 기호학이 담당했다고 보고, 영남 지역에는 이황의 도맥을 이은 정구의 학문을 크게 인정하였다.

권섭의 삶과 사유에는 주체성과 개방성 사이, 기호학과 영남학 사이, 세속과 초월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은사, 고사, 신선 등으로 조롱까지 받으면서 과거장에 나아갔으니,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서 권섭은 科場仙이었고, 그를 地上仙이라며 칭송하던 사람들에게서는 세정을 떨치지 못한 涕泣仙이었다. 그의 세계인식이 주체성과 개방성 사이에서 개방성으로, 영남관이 기호학과 영남학 사이에서 기호학으로 귀결되지만, 권섭은 언제나 중간자적 존재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이 그를 산수 속에서 방황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육소 권섭, 세계인식, 영남관, 주체성, 개방성, 화이론, 도통론, 기호학, 영남학, 중간자적 존재

I. 머리말

玉所 權燮(1671-1759)¹⁾이 활동했던 18세기는 지식의 페러다임이 변화해가던 시대였다. 중국 등 국외에서의 체험은 성리학 일변도의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을 주목할 때, 학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실학적 담론, 예컨대 행정제도의 쇄신이나 경제제민의 정치사상, 이용후생이라는 북학과들의 경제사상 등만으로 이 시대의 관심사를 모두 말했다고는 할 수 없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수백 권에 달하는 다양한 총집류 등의 백과사전은 조선 지식인들의 관심과 영역을 더욱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선은 성리학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 지식인들의 관심 영역은 무작정 확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는 마니아층이 출현하였다. 그림, 글씨, 바둑, 음악, 여행 등 매우 다양한 지적 취향으로 나타났다. ‘癡’ 또는 ‘癖’을 표방하면서 이들에 대한 자신의 맹목적 몰두에 대하여 무한한 애정과 즐거움을 느꼈다. 기존의 지식인들이 이를 玩物喪志로 배격해오던 것에 비해, 오히려 이러한 병적 취미를 통해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기까지 했다.²⁾ 이들에게서 공맹 등 성현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 권섭 역시 이 같은 문화풍토 속에서 자신의 예술 취향을 숙성시켜 갔던 인물 가운데 하나다. 그의 목소리를 잠시 들어보자.

나는 水石煙霞에 대한 性癖이 있어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이것은 바꿀 수 없다. 경치 좋은 곳을 만나면 반드시 정자와 누각을 세웠고, 거처하는 서재나 집에도 반드시 당호를 붙이고 기문을 지었다. 생계가 어려웠기 때문에 남들에게 사치스럽게

-
- 1) 권섭의 본관은 安東으로, 자 調元, 호는 玉所·玉所山人·百趣翁·無名翁·泉南居士 등이다. 아버지는 증이조참판 權尙明이고 어머니는 龍仁 李氏로 좌의정을 지낸 李世白의 딸인데, 서울 삼청동에서 이들 사이에서 장자로 태어났다. 조부는 執義 權格, 동생은 대사간 權瑩, 백부는 송시열의 수제자 權尙夏, 계부는 이조판서 權尙游이다.
 - 2) 18세기의 문화 개방과 조선 지식인의 세계화 대응에 대해서는 정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에서 두루 다루었다.

보여, 사람들이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였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³⁾

권섭은 산수를 지나치게 좋아한다는 水石煙霞癖[山水癖]을 갖고 있었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발언에서 이에 대한 그의 애호가 거의 병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계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만나면 거기에 정자와 누각을 짓고, 거처하는 서재나 집에도 반드시 당호를 붙이고 기문을 지어 걸었다. 사람들의 눈에 사치로 비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경화사족들의 사치성이 농후한 소비문화가 권섭에게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들어가면서도 자신의 취향을 바꾸지 않았다. 수많은 일화를 남기면서 단행했던 산수여행도 바로 산수벽의 일환이었다.

수석과 연하에 대한 애호가 아무리 강력했다고 하더라도 사물을 정밀하게 관찰하지 못하면 자신의 사상체계 속에서 그 의미를 재구성할 수가 없고, 자신의 사상체계 속에서 산수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글쓰기에 조예가 깊지 못하면 남에게 깊은 감동을 줄 만한 작품을 제작하지 못한다. 권섭은 이 셋, 즉 산수벽과 사물 관찰력, 글쓰기 재능을 모두 갖춘 18세기의 대표적인 문인이었다. 오히려 여기서 더욱 나아가 찬미가 있었다. 천부적 재질과 함께 다양한 독서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다음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해보자.

(가) 시의 경우는 天機가 움직이는 것이니,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⁴⁾

(나) 문장은 시대마다 수준이 높고 낮은 바가 있고 재주도 차이가 있으므로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책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숙달될 수 있다.⁵⁾

3) 權燮, 「散錄內篇」(『玉所稿』 7, 다운샘, 2007, 169쪽), “吾性癖在於水石煙霞, 世間百事, 無以易此. 遇勝絕地界, 必置亭臺, 所居齋閣, 亦必有名號題記. 生計蕭瑟, 而外視則侈矣, 人多議之而不少恤.” 번역은 이창희·장정수 역, 『옥소산록』(다운샘, 근간)을 참고하였다. 다운샘에서 영인한 『옥소고』(2007)는 권 수와 쪽 수만 제시한다.

4) 權燮, 「散錄內篇」(『玉所稿』 7, 172쪽), “至於詩, 則自有天機流動者, 非人力所可及.”

(다) 나는 사마천의 글 중에 <貨殖傳>과 <太史公自序>를 매우 좋아한다. <화식전>은 어렸을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틈틈이 공부하여 천 번을 읽었고, <태사공자서>는 한 번도 읽지 않았다가 금년부터 비로소 읽기 시작하였는데 하늘이 내 수명을 연장해 주면 반드시 천 번을 읽고 싶다.⁶⁾

권섭은 花柳는 화류대로 松柏은 송백대로 독자성을 지니며 천지조화의 오묘한 질서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화류와 송백을 비교하며 송백을 우위에 두고자 했던 일반론을 부정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입각하여 그는 사물접근을 시도했고, 이에 근거하여 수많은 시문을 남겼다. 시적 재능은 (가)처럼 천부적인 것이어서 사람의 노력으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 이에 비해 산문은 (나)처럼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사마천의 『사기』를 글쓰기의 전범으로 삼았다. (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가운데서도 <貨殖傳>과 <太史公自序>는 천 번을 읽었거나 읽고 싶다고 했다. 사마천의 문장이 ‘절실하면서도 긴요함[體要]’⁷⁾을 확보하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천기론에 입각한 그의 시적 상상력과 사마천의 글을 전범으로 삼은 권섭의 문장은 『玉所稿』에 갈무리 되어 있다. 현재 『옥소고』는 필사본으로 전하는데 제천본은 46책, 문경본은 17책으로 도합 63책이다. 여기에는 6,700여 수의 한시를 비롯하여 遊行錄과 散錄 등 다양한 산문, 75수의 시조, <寧三別曲>과 <道統歌> 등과 같은 가사, <醜薛卿傳>과 같은 한역소설 등 다양한 종류의 글이 있다. 『옥소고』는 1938년 옥소의 10세 손 권희만이 제천군 봉양면에서 13권 7책의 『玉所集』으로 새로 발췌 석인한다. 그러나 이 석인본은 일정한 기준이 없이 발췌 편집된 것이어서 권섭의 대표 작품이 많이 누락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⁸⁾

5) 權燮, 「散錄內篇」(『玉所稿』 7, 171쪽), “爲文章, 代各高下, 才有長短, 不可強而爲之, 但多讀則自馴熟耳.”
 6) 權燮, 「散錄內篇」(『玉所稿』 7, 264쪽), “余於司馬文, 切好貨殖傳太史公自序·貨殖傳, 少時, 爲馬上之工, 讀滿千數, 太史公自序, 則未曾一番讀, 自今年始伊吾, 若天假之年, 則必欲滿千數.”
 7) 權燮, 「散錄內篇」(『玉所稿』 7, 140쪽), “但不知其文章體要之嚴重矣. 至讀太史公自序貨殖傳, 文章無此體要, 乃怛然而自失也.”

권섭에 대한 연구는, 박요순에 의해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⁹⁾ 1980년대 후반 詩歌로 박사학위 논문¹⁰⁾으로 제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현재까지 권섭에 대한 논문은 도합 79편이 학계에 보고되었다. 학위논문이 14편, 일반 논문이 65편이다. 박요순이 연구의 단초를 열며 발표한 권섭의 연구 논문을 10년 단위를 끊어보면, 1976년에서 1990년까지 4편, 1991년에서 2000년까지가 8편, 2001년에서 2010년까지가 43편, 2011년에서 2020년까지가 16편, 2021년이 8편이다. 2001년에서 2010년 기간 동안 연구성과가 비교적 많았던 것은 고려대 이창희 교수 팀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협동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옥소고』(다운샘, 2007)가 영인 간행되고, 이에 따른 연구결과물이 학계에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권섭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시가 연구가 33편이니 그 중심을 이루고, 그 다음이 한시, 산문, 예술 등의 순이다. 문학지리학, 예학, 서지, 문학관, 학풍, 소설, 풍수, 여행 등에 대한 관심도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시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은 자료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과 선행연구에 힘입은 바 컸던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권섭에 대한 단행본 학술서¹¹⁾와 발췌본 번역서¹²⁾ 등이 출간되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연구물들이 제출되고 있다. 그러나 권섭 연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옥소고』의 정본이 이룩되지 않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번역은 아직 요원하기 때문이다.

-
- 8) 『옥소고』를 서지적 측면에서 자세하게 다룬 것은, 최호석의 「옥소 문집의 서지적 고찰」(『국제어문』 36, 국제어문학회, 2006)이다. 석인본에 대한 평가도 이 논의에 따른 것이다.
 - 9) 박요순, 「옥소연구」, 『한국언어문학』 14, 한국언어문학회, 1976 ; 「옥소의 가사연구」, 『국어국문학』 84, 국어국문학회, 1981.
 - 10) 박요순, 「玉所 權燮의 詩歌 研究」, 東國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86. 이후 이 논문은 탐구당(1987)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간되었다.
 - 11) 이창희 외, 『18세기 예술사회사와 옥소 권섭』, 다운샘, 2007 ; 신경숙 외, 『옥소 권섭과 18세기 조선 문화』, 다운샘, 2009.
 - 12) 이창희 역, 『내 사는 곳이 마치 그림 같은데』, 다운샘, 2003 ; 문경세계박물관 엮어 옮김, 『삼천에 구백리 머나먼 여행길』, 문경시, 2008 ; 이창희·장정수 역, 『옥소산록』, 다운샘, 근간.

본고에서는 이상의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주로 권섭이 지닌 세계인식과 영남관을 다룬다. 그는 분명 華夷論에 기반한 道統論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상상하고 실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를 ‘主體的 開放性’이라는 시각 하에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가 만년에 문경의 화지장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기호와 영남의 소통에 적극적이었던 점에 착안하여, 이를 ‘畿嶺學的 會通性’의 측면에서 다룬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권섭이 지닌 사상적 근거와 이에 따른 상상력의 행방을 포착하게 될 것이다. 이로써 그의 수다한 작품에 작동하는 어떤 원리의 일단이 해명되기를 기대한다.

II. 권섭의 삶과 그 특징

권섭은 서울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론과 낙론계의 학풍 및 경화사족의 문화적 풍토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¹³⁾ 특히 효종의 넷째 딸 淑徽公主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대궐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성장하였다.¹⁴⁾ 경화사족은 전대 전통 주자학자들의 학풍을 계승한 주자주의적 義理學이나 經世學을 외면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훨씬 뛰어넘어 자유롭게 상상하고 활동하였다. 金昌協과 金昌翁 형제로 대표되는 노론의 낙론계 학자들은 송시열의 의리론을 수용하면서도 서울 지역의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갔다.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권섭은 그의 예

13) 이에 대해서는 조성산, 「玉所 權燮(1671~1759)의 學風과 現實觀」, 『東洋學』 4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7을 참조할 수 있다.

14) 이에 대하여 권섭은 「散錄內篇」(『玉所稿』 7, 199)에서, “眞平尉는 외조모 鄭 부인의 친동생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늘 淑徽公主의 곁에 있으면서 자식처럼 사랑을 받았고, 따라서 대궐을 출입하면서 현종과 숙종, 慈懿·明聖·仁敬 왕후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은혜를 입기까지 했다.”라고 기술했다. 한편 <欲書墓表後而不書>(『玉所稿』 5, 「墓山誌」 2, 369쪽)에서는, “옹은 어려서부터 옹주의 집과 재상의 집에서 자라 몸이 변화한 환경에 놓여 있었으나 담박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라 하였다.

술 및 문학적 취향을 숙성시켜갔고, 국문시가에 대한 관심도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적극 제출하였다. 송시열의 제자인 權尙夏의 조카이면서, 김창협 형제에게 수학한 문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 용이하였다.

권섭의 고조부 權霍는 오수 찰방으로 풍산인 沈日升의 딸을 아내로 맞아 선산 부사 權聖源을 낳았다. 권성원은 진주인 姜善餘의 딸을 아내로 맞아 강릉부사 權格(1620-1671)을 낳았으니 권섭의 조부다. 권격은 함평인 李楚老의 딸을 아내로 맞아 權尙夏, 權尙明(증이조참판), 權尙游(이조판서)와 朴泰迪 및 朴弼揆에게 시집간 두 딸을 낳았다. 이 가운데 둘째 권상명이 용인 이씨 李世白이 딸과 혼인하여 권섭, 權瑩(대사간) 형제와 黃植에게 시집간 딸을 낳는다. 백부 권상하는 송시열의 적통으로 이후 韓元震으로 학통을 계승하면서 호론을 형성하였고, 외가는 金尙憲의 생질로 좌의정을 지낸 이세백이었다. 李宜顯이 바로 그의 아들로 당대 대문장가로 명망이 높았다.

권섭의 생애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는 데는 그 스스로가 쓴 <自述年紀>(54세)와 <述懷詩敍>(54세)가 많은 도움이 된다. 권섭은 6세(1676)부터 역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14세(1684)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백부 권상하의 슬하에서 학문에 전념한다. 16세(1686)에는 정철의 5세손인 鄭載文과 평생의 지기가 되었고, 17세(1687)에는 장인 이세필에게 경사백가를 배우는 한편 李台佐 등 처형과 함께 萬紀寺에 들어가 『사기』를 읽기도 한다. 당시 그는 『사기』 15열전을 2,3백 번씩 읽었다고 하는데, 주된 목적은 문리를 터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사기』는 자연스럽게 그의 문장력을 구성하는 하나의 전범 구실을 하였다.

19세(1689, 숙종 15)에 발생한 己巳換局은 권섭의 생애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백부 權尙夏의 스승 宋時烈이 세자 책봉을 반대하다가 賜死되거나 인현왕후 민씨가 폐위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하는 사건을 말한다. 당시 권섭은 외증조모 가문인 金壽恒과 金壽弘 등이 유배·사사되는 것을 목도한다. 송시열의 파직 소식을 듣고 隸科의 공부를 그만두었고, 인현왕후 폐위 당시에는 송시열의 문인 成揆憲(1647-1741)이 상소를 올리자 여기에 疏頭로 참여하였다가 고초를 당하기도

했다.15) 그의 청년기는 이처럼 『사기』를 중심으로 한 과거공부, 기사환국으로 인한 좌절을 맞보는 시기였다.

기사환국 이후 권섭은 21세(1691)에 재산을 정리하고 술사를 불러 산을 찾았는데, 23세(1693)에 제천의 문암동에 선산을 정했다. 이 시기에도 그의 과거 공부는 지속되었고, 이후 18차례나 과거에 응시하였지만 뜻한 바를 이루지는 못했다. 백부 권상하의 명으로 과거 공부를 하였지만, 24세 때는 과거에 회의를 품었고 32세(1702)에는 과거를 완전히 단념하게 된다. 잦은 과거의 낙방으로 인해 계부 권상유가 왕실의 힘을 빌려 권섭을 출사케 하고자 하였으나, 그는 ‘혹 저절로 온다면 굳이 사양할 이유가 없지만 녹을 구하는 것은 수치’16)라고 하면서 거절하였다.

권섭은 16세(1686)에 경주 이씨와 혼인하였으나 25세(1695) 되던 해에 그의 아내가 사망하였고, 이어 26세(1696)에는 종실 帶原君 李光胤의 딸 전주 이씨를 부실로 맞고, 27세(1697)에는 趙景昌의 딸에게 다시 장가들었다. 47세(1717) 봄부터 집안이 어지러워져서 7년 동안 가산을 탕진하여 의지할 곳이 없게 되는데, 권섭은 당시의 마음을 “아이들과 손자를 이끌고 머리를 들어 하늘에 물었으나 하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17)라 적고 있다. 이에 충청도 여산 무영평에서 농사를 짓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52세(1722)에 왕통 문제와 관련하여 소론이 노론을 숙청한 辛壬士禍를 맞는다. 이 사건으로 金昌集·李頤命·李健命·趙泰采 등 노론 4대신이 사사되고, 백부 권상하의 관직이 추탈되었으며, 계부 權尙游와 외숙 李宜顯 등이 삭직 혹은 문외송출된다. 설상가상으로 이듬해 1월 24일에는 큰아들 權盡性이 어보를 위조한 죄목으로 不待時處斬을 당하고 가산이 籍沒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권섭의 생애사에서 가장 충격적

15) 權燮, <自述年紀>(『玉所稿』 5, 「墓山誌」 2, 353쪽), “國有內殿出宮之燮, 參成揆憲之疏, 又與朴公世輝 疏訟尤老之寃, 願贖其死而不得, 相率痛哭於闕門外, 與疏頭同入刑曹待刑, 仍留布塵樓上, 月餘出入典獄, 問疏頭之囚 仍治送其謫行.”

16) 權燮, <自述年紀>(『玉所稿』 5, 「墓山誌」 2, 359쪽), “自三十歲後, 季父愍我之, 無所成名, 欲藉妻家敦寧, 爲發身之梯, 余臨政覺知而曰, 倘來, 無必辭之義, 干祿耻也.”

17) 權燮, <自述年紀>(『玉所稿』 5, 「墓山誌」 2, 362쪽), “携持兒孫, 昂首問天, 而天不應矣.”

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큰아들 권진성 사건을 겪고 난 다음, 권섭은 문경 화지동을 새로운 삶의 근거지로 삼는다. 54세(1724)의 일이다. 여기에 부실 전주 이씨가 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그에게 닥치자 이에 따른 避地意識 역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그는 화지동에서 거친 돌밭을 개간하여 25간의 집을 지었는데, 花枝라 이름한 것은 花枝莊이 新香山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권섭은 <花枝莊記>에서, “화지장은 문경현 관문에서 10리 떨어진 신북동 안에 있다. 감나무가 숲을 이루고 엄연히 백여 호에 가까운 집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큰 돌산이 바깥쪽에 솟아 있고 산기슭이 나지막이 둘러있다.”¹⁸⁾라고 하면서, 이곳이 불만한 경치를 이루어 그 기이함을 즐길만 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花枝莊>과 <花枝莊二十五間>이라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권섭의 생활 거점이 문경으로 이동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체천을 오가며 다양한 곳을 여행한다. 그 이전에도 장인 이세필의 임지인 상주를 비롯해서 경상도 일대를 유람한 적이 있었으나(30세, 1700), 풍기, 영주, 안동, 경주, 양산, 김해, 지리산, 가야산 등 영남 여행은 더욱 다양해졌다. 87세(1757)에는 종제의 임소인 함흥지역까지 먼 여행을 단행하였고, 거기서 동갑의 노기 可憐을 만나 시를 수창하고, 그녀가 지은 시조를 한역하기도 했다. 권섭은 89세(1759, 영조 35)에 세상을 떠나는데, 장지는 단양 長淮里 玉所山이었다. 그의 만년은 여행하는 와중에도 <道統歌>를 짓고 『玉所藏杏』를 편찬하여 구곡가계 시가를 정리하는가 하면, <黃江九曲歌>, <花枝九曲> 등을 창작하여 도통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권섭 삶의 대체적 흐름을 파악하였으니 이제 그의 삶에 나타난 특징을 찾아볼 차례이다. 첫째, 현실순응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다. 시간은 지속과 변화를 공유한다. 작가들은 누구나 시간 속에 존재하며 때로는 지속에, 때로는 변화에 적극 반응하며 자신의 작품세계를 만들어간다. 지속 편에 서 있는 작가들이 있는가 하면, 변화 편에 서 있는 작가들도

18) 權燮, <花枝莊記>(『玉所稿』 9, 「亭閣錄」 1, 133쪽), “花枝莊, 在聞慶縣門十里身北洞中, 柿木成林, 儼然有近百村落, 大石山外峙, 而四周低麓盤.”

있다. 또 많은 작가들은 그 사이에서 고민한다. 이를 보수와 진보, 혹은 저함과 순응이라는 용어로 간단히 처리하고 말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권섭은 어떠하였을까?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자.

옛날 선비의 자식들은 비록 公卿의 자제라고 해도 모두 걸어 다녔는데, 지금은 서얼로서 校生이 된 자들도 출타를 할 때 안장이 없는 말을 타면 부끄럽게 생각한다. 선비 집안의 부녀자들은 모두 羅拂을 덮어썼는데, 지금은 첩 또한 庶母가 되면 屋輻을 타며, 서민과 賤出들도 모두 그렇게 한다. 중인 이하의 사람이 양반을 만나면 모두 말에서 내렸는데, 지금은 비록 私賤이라 하더라도 말을 타고 양반의 앞을 휩 지나가며, 또 서로 마주쳐도 길을 양보하지 않으니, 시대가 변했음을 알 수 있다. 世教가 쇠퇴했음을 생각지 않고 망령되게 꾸짖으려고 했다가는 다만 수고롭고 아무런 성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욕을 당하기도 한다.¹⁹⁾

권섭은 시대 변화를 절감하면서 윗글을 썼다. 예전과 달리 서얼, 첩, 서모 등과 같은 천출이 양반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전통문화에 입각해 꾸짖는 경우, 전통문화를 생각하면서 한탄하는 경우,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는 경우가 있을 터인데, 권섭은 두 번째를 선택했다. “망령되게 꾸짖으려고 했다가는 다만 수고롭고 아무런 성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욕을 당하기도 한다”고 한 발언 속에 그의 생각과 행위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지속과 변화 가운데, 중간자로 서서 불만을 갖고 현실에 순응해나가는 자세가 바로 그것이다. 그의 이러한 자세는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는데,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오히려 가장 즐거운 삶이라는 생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현실 순응에 대한 특별한 자기 논리를 확보한 것이라 하겠다.

둘째, 묘당과 산림 사이에서 고민하지만, 산림 속에서의 山水之樂을 큰 보람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권섭은 경화사족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19) 權燮, 「散錄內篇」(『玉所稿』7, 146쪽), “古之時士子, 雖公卿子弟, 皆步行, 今則庶孽校生輩出行, 非鞍馬則恥. 士族婦女, 皆蒙羅拂, 今則妾亦於爲人庶母之後, 則乘屋輻, 庶賤亦然. 中人以下, 逢兩班, 皆下馬, 今則雖私賤, 騎馬突過於兩班之前, 又當頭而不讓路, 此足以觀時變矣. 人非秉世教之責, 而妄欲呵禁者, 不但勞而無功, 亦自速咎.”

관료문화에 누구보다 익숙하였다. 비록 실패는 하였지만 그 스스로 18 번이나 과거에 도전하였고, 백부와 계부 등도 권섭이 과거로 出身하기를 간절히 희망하였다. 1730년(59세) 5월 13일에는 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꿈에 남을 대신해 돌아가기를 간청하는 乞還疏를 썼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그는, “나 자신이 진실로 우습구나. 깊은 산속 작은 집에 살면서도 세상에 나아가고자 하는 한 조각 마음이 남아 있었다는 말인가”²⁰⁾라며 탄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산수지락은 食色の 욕망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스스로 말했다. 다음 자료를 보자.

산을 노니는 아취 있는 일에 대한 욕심은 음식이나 미색과 같다. 사람들은 반드시 실컷 먹으면 젓가락을 멈추고, 한껏 마시면 술잔을 엮어 두는 것, 또 달리다가 발을 멈추고 쉬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불교에도 “좋은 뽕나무 아래에서 3일을 묵는 것에 대한 계율”이 있다. 그래서 나는 즐겁거나 기이한 일을 겪으면 반드시 바로 일어나 미련을 두지 않는다. 胡澹菴이 집으로 돌아와 梨渦를 대하고는 문득 특별한 감정이 생겼는데 이는 澹菴이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금강산 해산정에서 돌아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오래도록 눈에 선연히 남아 당시의 감정을 잊지 못하니, 이로 보아 산수를 구경하고 싶은 욕심은 음식이나 미색보다 심하다는 것을 알겠다.²¹⁾

음식·남녀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다. 권섭은 아무리 즐거운 일이라도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금강산을 구경하고 온 이후로는 그것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송나라 胡銓의 고사를 들어 이를 말했는데, 호전은 유배 생활을 하고 돌아온 후 그때 자신을 모시던 기녀를 잊지 못해 여러 사람들에게 기롱을 받았는데, 그의 산수지락은 이보다 더하다고 했다. 산수에 대한 생각이 이러하였으나 그는 관직생활

20) 權燮, 「散錄內篇」(『玉所稿』 7, 229쪽), “此人誠可笑, 窮山小屋之中, 亦復一念有不忘於人世耶?”

21) 權燮, 「散錄內篇」(『玉所稿』 7, 225-256쪽), “遊山雅事欲, 則同於食色, 人必貴於大嚼時停箸, 劇飲時覆觴, 並馳中住足. 浮屠氏, 亦有三宿好桑下之戒, 是故, 余於樂且奇時, 必卽起而不留戀矣. 胡澹菴歸對梨渦, 却有情, 澹菴歸對故然矣. 吾則雖來金剛山海山亭, 已遠而長在眼中, 未能忘情, 是知山水之欲, 甚於食色.”

을 혐오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외삼촌 李宜顯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의현이 영의정을 지낸 것은 그가 한 산수기행이 미치지 못하지만, 이의현이 명리에 얽매인 것은 그 자신이 편안하고 한가롭게 쉬는 것만 못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 산수지락은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지고한 무엇이었다. 이처럼 권섭의 의식은 묘당과 산림 사이에서, 산수지락을 향해 깊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셋째, 자신의 취미에 몰입하였다는 점이다. 권섭의 취미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글쓰기, 예술활동, 산수기행은 그 대표적이다. 『옥소고』에 실린 6,700여수의 시를 비롯한 방대한 글에서도 확인되듯이 그는 記錄癖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사물에 대한 감흥은 물론이고 일상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가 상찬해마지 않았던 글쓰기의 전형은 사마천의 〈貨殖傳〉과 〈太史公自序〉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글은 진실성, 담박성, 평이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 것인데,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꾸미기를 좋아하여 모두 광대의 흉내를 낸다고 했다. 그의 글쓰기는 新奇意致의 독창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申維翰은 이를 두고, “참으로 좋은 재주를 지녔지만 단지 자신만의 글일 뿐”²²⁾이라 했다. 스스로에게 몰두한 권섭 글쓰기의 창의성을 평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권섭은 문예뿐만 아니라 음악과 그림에 대한 남다른 안목을 갖고 있었다. 그가 당대의 예술인 16명을 찬양한 〈十六贊〉은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대변한다. 권섭은 이들을 國中人才로 생각하고 특별히 기렸다. 여기에는 鄭澈과 같은 사대부에서 吳順白과 같은 천인도 있었다. 즉, 시는 李一源과 洪世泰, 문장은 李舜瑞, 산수화에는 鄭澈과 金翊胄, 포도화는 洪受疇, 조수화는 李夏英, 인물화는 曹世傑, 초상화는 金振汝, 명필로는 李宜炳과 李翊臣, 전서는 南道振, 예서는 金鎮南, 거문고는 文元健,

22) 權燮, 「散錄內篇」(『玉所稿』 7, 308쪽), “申維翰論我文曰, 儘好手而只是自家文.” 권섭의 好奇는 산수유람으로 확장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洪致中은 〈次權調元夢遊詩序〉(『玉所稿』 11, 316쪽)에서, “아! 심하도다. 조원의 기이함을 좋아함이어! 내가 그가 칭찬한 누각의 아름다움과 산해의 승경을 보니 모두 유람의 즐거움을 다할 만했다. 게다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시를 짓는 모임이 있어 더욱 즐거워 도를 다할 수 있었다.”라 하고 있다.

피리는 劉野鶴의, 검무는 吳順白을 들었던 것이다.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음악 체험,²³⁾ <屏簇軸帖記>를 비롯한 다양한 그림에서도 그의 예술 활동은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행은 권섭 삶의 목적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 스스로 “나는 승려의 운명을 타고 났으니, 억지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즐거움을 누리고자 한들 될 수 있겠는가”²⁴⁾라고 하면서 紀行癖을 고백한 바 있다. 친구들이 약속을 어겨도 홀로 여행을 떠나거나, 87세에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從弟의 임소인 함흥지역으로 원유하기도 했다. 연시조 <獨自往遊戲五章>과 기행록 <遠遊記>는 바로 이를 작품화한 것이다. 그의 산수기행의 범위는 한계가 없었다. 현실공간 가운데 기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직접 가서 탐승하였고, 갈 수 없는 곳은 그림으로 그려 臥遊淸賞의 자료로 삼으며 현실 속의 기행공간을 확장하였다.²⁵⁾ 여기서 더욱 나아가 꿈속의 경치를 그려 초월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보면 그의 기행벽은 산수화 및 夢畵 등과 맞물리며 독특한 예술적 성취를 거두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보듯이 권섭은 경화사족의 문화풍토 속에 성숙되지만, 기사 환국과 신임사화는 그의 삶에 커다란 좌절을 안겨주었다. 이로 인해 나아가 벼슬하기보다 물러나 산수를 탐닉하며 자신의 삶을 즐겼다. 그의 산수 탐닉은 현실의 宜·不宜에 따른 유가적 출처의식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현실정치가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자가 어보 위조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문경으로 생활의

23) 권섭의 음악 체험에 대해서는 신경숙, 「옥소 권섭의 음악경험과 18세기 음악환경」, 『18세기 예술사회사와 옥소 권섭』, 다운샘, 2007에서 두루 다루었다.

24) 權燮, 「散錄內篇」(『玉所稿』 7, 226쪽), “吾生自是僧身命, 強而爲室家之樂, 其可得乎?”

25) 권섭은 몽화의 제작동기를 夢記의 서문(『玉所稿』 16, 「推命紙」 69-70쪽)에서 밝히고 있는데, “지역의 이름난 산수 가운데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으면 그렸고, 발길이나 눈길이 한두 번 닿았지만 항상 가볼 수 없으면 그렸다. 상상으로 가끔 특별한 경관을 만들어 내면 그려 두고서 누워 노닐며 맑게 감상하는 자료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거점이 바뀌지만, 권섭은 현실순응적인 태도를 갖고, 기록벽과 기행벽에 입각해 산수를 탐닉하였다. 그것은 꿈을 통한 욕망의 해소라는 몽환적 효용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산수와 여행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발생한 夢畵를 통해 매우 적극적으로 구현된다.

Ⅲ. 권섭의 세계인식: 주체적 개방성

조선조 사대부들은 觀物에 대한 특별한 의식이 있었다.²⁶⁾ 권섭의 경우, 觀物察理의 이념적 인식이나 觀物察世의 역사적 인식보다 觀物察形의 즉물적 인식이 더욱 강조되었다.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묘사하였던 것이다. 그의 진경산수화풍이나 글쓰기에 있어 묘사의 사실성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룩된 것이다. 그의 사물에 대한 전방위적 개방성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는 당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 권상하의 조카였고, 예학에 기반한 질서의식 또한 남달랐다. 이러한 권섭이 지닌 세계인식의 양면성을 주체적 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권섭 세계인식의 주체성에 대해서다. 조선조 사대부들의 세계관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주자 성리학이다. 이 때문에 권섭의 주체성 역시 주자 성리학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주희의 『주자가례』나 金長生의 『喪禮備要』 및 尹宣學 등의 『家禮源流』를 참고하며 사당제도를 정비하거나, “敬工夫를 동정에 따라 한결같이 하여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어찌 후회할 일이 있겠는가”²⁷⁾라고 하면서 성리학적 수양론을 특기하기도 한다. 권섭이 성리학적 수양론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爲己之學이 학문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天人性命의 이치

26)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사물인식에 대해서는, 정우락, 「16세기 사림과 작가들의 사물관과 문학정신 연구-임훈이항조식의 경우를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34,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4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27) 權燮, 「散錄內篇」(『玉所稿』 7, 221쪽), “敬工夫, 一動靜而不懈, 則焉有悔吝?”

로 논란을 벌이다 편당이 생기는 것을 매우 경계하였다. 이러한 성리학 적 세계인식은 그의 논리가 하학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 그의 도통론과 화이론도 이와 일정한 맥락이 닿아 있다.

도통론은 성리학의 자기 정체성과 정통성 확보와 밀접한 관련성 있다. 요순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도통론은 조선의 성리학 유입에 따라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조광조로 그 계보를 잇는다. 사화를 거치면서 정치적 상황이 안정기에 들어가자, 『중용』을 중심으로 한 道問學과 尊德性이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조선 도통의 계보가 정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도학을 밝혀 문묘에 종사된 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 등 東方五賢이 탄생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황 이후 봉당정치가 발생하면서 성리학적 도통관은 노론과 남인이 서로 달리했다. 권섭이 전하는 다음 자료를 보자.

斯文의 도통은 우리나라 다섯 현인이 천 년의 드리워진 끝을 이어받았다. 퇴계 [이황]가 있는 후에 율곡[이이], 사계[김장생], 우암[송시열], 한수재[권상하]를 일컬으며, 또 한 갈래는 사계, 동춘[송준길]을 일컬으며, 또 한 갈래는 우암, 농암 [김창협]을 일컬으며, 또 한 갈래는 퇴계, 우계[성혼], 현석[박세채]을 일컬으며, 또 한 갈래는 퇴계와 한강[정구]을 일컫는다. 이처럼 문호를 쪼개고 나누어 사사 로이 명호를 세우니, 백세 후에 율곡 같은 이가 나와야만 공안을 세울 것이다.²⁸⁾

‘다섯 현인’은 김굉필 등 소위 동방오현이다. 오현 가운데 이황이 한 사람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다양한 분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그가 소개한 당대 조선의 도통은, ① ‘이황→이이→김장생→송시열→권상하, ② 이황→이이→김장생→송시열→김창협, ③ 이황→이이→김장생→송준길, ④ 이황→성혼→박세채, ⑤ 이황→정구 등 다섯 계열이라 했다.²⁹⁾ 이이 같은 이의 새로운 등장을 통해 이 갈래들이 청산될 수 있

28) 權燮, 「散錄外篇」(『玉所稿』7, 495-6쪽), “斯文道統, 我國五賢接千載之陰緒, 有退溪以後, 曰栗谷沙溪尤庵寒水, 又一條曰沙溪同春, 又一條曰尤庵農岩, 又一條曰退溪牛溪玄石, 又一條曰退溪寒岡, 分門割戶, 私立名號, 俟百世有如栗谷者出, 乃作公案.”

29) 이밖에도 “최근에는 도암 이재선생이 나와 퇴계를 이어 서서 홀로 스승에게서 전수

다고 하면서도, 그는 ①계열이 정통성을 얻었다고 생각했다. 만년의 일이지만 구곡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가사 <도통가>를 지어, ‘이이 → 송시열 → 권상하’의 도맥을 강조하거나, 『옥소장계』를 지어 주자의 <무이도가>가 이이의 고산구곡, 송시열의 화양구곡, 권상하의 황강구곡으로 이어짐을 보였고,³⁰⁾ 여기서 나아가 그 스스로 화지구곡을 지어 그 스스로 여기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³¹⁾

화이론은 한쪽으로 구성된 문명한 중화를 존중하고 이민족인 오랑캐를 물리치자는 논의이다. 조선의 대외정책의 골간이 된 사상이다. 권섭은 노복의 기세가 상진보다 성하고, 서자의 기세가 적자보다 성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보고, 군자는 오랑캐와 중국, 군신과 상하, 소인과 군자, 이단과 정학의 차이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더욱 나아가, 변방의 풍조가 중화와 다르다고 하면서 분수를 알아야 할 것이라 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조선이 명나라와 같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위로 더욱 거슬러 올라가 삼대를 본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권섭의 화이론은 다음 문장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어떤 이가 나를 방문하여 말하기를, “향교의 하마비를 보니 崇禎在丁巳로 쓰여 있어 이상하다. 숭정 연호가 없어진 것은 이미 오래인데, 어찌 연호를 삼을 수 있는가.” 하였다. 나는 이에 대답하기를, “이것이 서인과 남인의 다른 점이다. 그렇다고 강희 연호를 마땅히 써야 하겠는가.” 하였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오랑캐이면 서도 중국에 나아가면 중국으로 대하는 것이다.” 하였다.³²⁾

받은 도를 높이고자 하였고, 남당(한원진)선생은 성전(이이근)과 구운(채지홍)을 압도하고 앉아 세교를 맡고자 하니 필경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玉所稿』 7, 6쪽)라고 하면서 이제와 한원진이 문과를 만들어 도통을 자임한다고 했다.

30) 이에 대한 논의는 이상원, 「<도통가>와 <황강구곡가> 창작의 정치적 배경」, 『한민족어문학』 43, 한민족어문학회, 2003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31) 권섭의 사상적 경향과 삶의 궤적을 볼 때, 그 스스로 도통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만년에 도통과 관련한 일련의 작품을 산출한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는 양면성의 문제로, 권섭이 표면적으로는 도통에 관심을 보였지만 이면적으로는 여기에서 자유로웠는가 하는 점, 둘째는 시간적 추이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다르게 나타났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향교 하마비에 새겨진 승정 연호를 두고 벌인 권섭과 어떤 이의 논쟁을 기록한 것이다. 서인인 권섭은 나라의 주인이 오랑캐로 바뀌었으나 청의 연호를 쓸 수 없다고 했고, 남인인 어떤 사람은 오랑캐이지만 중국의 주인이 되었으니 중국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다. 권섭은 이팔을 군부로 볼 수 없듯이, 춘추의리정신에 입각해 상황을 파악하고 중화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남인과 서인의 다른 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권섭은 조선에서 명나라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세운 祭壇인 大報壇을 특기할 수 있었으며, 명나라 의종과 신종을 제사 지내기 위해 세운 萬東廟 건립의 주인공인 송시열과 권상하를 특별히 추모하였다. 그의 사상 속에 화의론이 강력히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둘째, 권섭 세계인식의 개방성에 대해서다. 추체성이 구심력을 갖고 지나치게 강조되면 세계를 인식하는 통로가 좁아져 경직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세계인식의 경직성은 성리학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권섭의 경우, 여러 방면에서 개방성을 보였다. 풍수에 대한 관심은 조선조 사대부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 차치하더라도, 平澹을 추구하던 당대의 보편적 문예의식을 넘어서는 古奇의 미의식을 중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古奇가 순리를 따라가서 난해하지 않는 것이 최상의 문장이라 했다.³²⁾ 이는 권섭이 古라는 전범과 奇라는 개성을 함께 강조한 결과이다. 이러한 권섭의 개방적 세계인식을 사상적 측면과 신분적 측면에서 확인해보자.

권섭은 사상적으로 개방되어 있었다. 그 자신 이이, 송시열, 권상하로부터 이어지는 기호학의 도맥을 이어받으면서 성리학적 주체역량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는 그 스스로가 도통가나 구곡시를 통해 이미 보여준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합리를 넘어서 있는 예언과 관상을 신뢰한다. 즉, 권상하가 권섭에게 霞谷 尹氏의 말이라 전하며 “자네의 모습은 너덕하지만 끝내 벼슬자리를 얻지 못할 것이다”³⁴⁾라고 한 것을 들며

32) 權燮, 「散錄外篇」(『玉所稿』 7)

33) 權燮, <書贈趙秀才鎮憲>(『玉所稿』 4, 305쪽), “古奇而不艱晦, 是不悖於典刑機軸.”

신묘하게 들어맞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곳에서 운명론적 사고를 보이고 있다. 합리적인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민간에 떠돌던 귀신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특히 유불도를 그 자신의 전후 생애와 밀착해 서술한다.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가) 점치는 사람이 나의 운명을 추측하여 말하기를 ‘그대는 스스로 葱嶺에서 왔으니 현재의 淸寒한 삶을 사양하지 말게나. 후생의 인연 또한 瓊觀과 瑤臺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라고 한 다음에, 바로 책 한 권을 펼쳐서 보여주었다. 산속에는 첩첩산중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³⁵⁾

(나) 청풍의 한천장과 능강동은 내가 말년을 보내며 편안히 쉴 곳이다. 젊어서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재주가 없고, 늙어서는 굶주림을 참아야 하는 분수를 편안히 여기니, 산그늘 지고 물 굽이진 곳에서 한적하게 홀로 지내게 됨을 어찌 근심하겠는가? 점치는 이가 이르기를 ‘전생에 스님이었기 때문에 현재 청한하게 지내고 있으며 또 내세에는 마땅히 도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삼생이 있다는 말을 누가 허황되다고 하겠는가? 나는 스스로 그것을 편안하게 여긴다. 이 세상에 태어나 58년 동안 꿈꾼 것을 기록했으니, 이 몸이 이 세상에 붙어사는 것도 아직 깨지 않은 꿈이다.”³⁶⁾

위의 두 자료에서 보듯이 모두 점치는 사람이라는 예언가를 등장시킨다. 그리고 현재 청한하게 살고 있는 선비는 전생이 승려였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다시 내세에 도사로 태어날 것이라 했다. 그는 이러한 삼생의 윤회를 허황되다고 하지 않고, 이승 또한 꿈의 세계라 하였다. 이 같은 생각 때문에 그는 꿈의 세계에 대하여 몽기를 쓰고 몽화를 그렸던 것이

34) 權燮, 「散錄內篇」(『玉所稿』 7, 145쪽), “爾則兒相豐碩, 而終未得一第.”

35) 權燮, <後來緣業>(『玉所稿』 16, 「推命紙」, 139쪽), “占者, 推我之命曰, 爾身自自葱嶺來, 見在之淸寒, 爾毋辭焉. 後來緣業, 又將不離於瓊觀瑤臺之中, 仍披縹一卷書, 書中畫萬疊之山.”

36) 權燮, 「寒泉庄凌江洞」(『玉所稿』 16, 「推命紙」, 117쪽), “淸風之寒泉凌江, 是我終老燕息之所也. 少非需世之才, 老安忍飢之分, 則山之陰水之曲, 亦何病於幽獨? 卜者云, 前緣是僧, 故見在自淸寒, 後身又當作道士, 三生之說, 孰謂誕妄, 吾自安之, 生世以來, 五十六年之間, 有夢則記之, 此身之寄在此世界, 亦一未覺之夢.”

다. 나아가 <過去因緣>과 <後來緣業> 등의 그림에서는 불교의 과거와 유교의 현재, 도교의 미래가 하나의 화면에 나타나기도 한다.³⁷⁾ 이는 삼세가 모두 꿈의 세계이며, 이 세계에서는 유불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서 권섭의 개방적 세계인식이 현실 세계 속에 진행되는 사상사를 훨씬 뛰어넘는 자리에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권섭은 신분적으로도 개방되어 있었다. 그 자신 경화사족의 대표적 양반계층이었지만 중인이나 천민에게도 불만한 장기가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들의 위상을 설정해 주었다. 영사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역적으로는 중국과 조선을 넘나들었고, 신분적으로는 왕으로부터 촌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³⁸⁾ 당대인들과의 교류도 다르지 않았다. 사대부 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홍세태나 정래교와 같은 중인과 관계가 돈독하였으며,³⁹⁾ 劉野鶴과 吳順白과 같은 천인도 그의 능력을 기려 당대를 대표하는 예인 속에 포함시켰다. 권섭이 자신의 신분적 개방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인 것은 동갑내기 함흥 기녀 可憐(1671-1759)과의 교류이다. 권섭이 그녀를 만난 것은 87세 되던 해인 1757년이었다. 다음 자료를 보자.

내가 87세에 북로를 유람하다가 87세가 된 노파를 만났는데, 그 노파의 글을 사랑하고 명절을 가상히 여겨 허다한 詩律과 詞翰을 지었다. 노파는 반드시 가곡으로 응수를 하였다. 돌아와서 재삼 읊어보니 오기를 바라고 애모하는 말이 아닌 것이 없어서, 짧은 시절 만나지 못한 것이 매우 한스럽다.⁴⁰⁾

37) 權燮, <過去因緣>(『玉所稿』 16, 「推命紙」, 106쪽)은 1728년(영조 4) 10월 5일 기이한 꿈을 꾸고 나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지은 것인데, 그 시에서 “...이내 몸 작은 盧僊으로 환생하였고[吾身幻作盧僊小], 부처의 손은 보탑에서 가지런히 드리웠네 [佛手齊垂寶榻危]...”라고 하였다.

38) 권섭의 영사시는 이창희, 「옥소 영사시의 연구」, 『우리어문연구』 26, 우리어문학회, 2006에서 다루었다.

39) 권섭은 홍세태와 특별히 가까워 그와 만나는 꿈을 꾸고 그린 몽화 <洪滄浪家>(『玉所稿』 16, 「推命紙」, 103쪽)가 있으며, 홍세태가 시인으로 온 나라에 이름을 날리자 그의 주인이 싫어하여 옥에 가두니 김석주가 구제하였다는 일화도 기록해두고 있다.

위의 글에는 권섭이 함흥 노기 가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적실하게 드러난다. 이에 그는 가련과의 만남, 사랑, 이별을 <鬮老婆歌曲十五章>에 담았다.⁴¹⁾ 권섭이 시을을 짓고 가련이 가곡으로 응수하면서 그들의 예술적 교류는 진행되었다. 당시 가련이 지은 가곡 15수는 <번노파가곡십오수>로 번역되었다. 이별 후에도 두 사람은 작품을 주고받았는데, <답기함과> 등 5수가 그것이다. 가련과의 만년 교유는 한시, 서간, 한역시, <가련광지> 등으로 다양한데, <잡저> 한 권 분량이다. 우리는 여기서 권섭과 가련의 관계가 벗 혹은 연인의 관계로 발전하면서 그의 세계인식은 더욱 개방되어 갔던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권섭이 세계를 주체적 개방성의 입장에서 보았다면, 이것은 그의 세계인식이 어느 하나로 고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그는 사물의 속과 겉을 함께 볼 것을 당부할 수 있었다. “질병은 나쁜 인연이고 술은 그릇된 약이지만 시에 들어가면 좋고, 개는 사랑스럽지만 그 짖는 소리를 들으면 싫다.”⁴²⁾라고 하거나, “천하에 사랑스러운 것이 체비와 학이지만 사람이 더욱 사랑스럽고, 사람 중에도 친척이 더욱 사랑스럽다. 천하에서 두려운 것이 뱀과 범이지만 사람이 더욱 두렵고, 사람 중에도 친척이 더욱 두렵다.”⁴³⁾라고 했던 것이 그것이다. 양가적 측면에서의 사물 이해는 그 사물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게 한다. 사물의 양면을 함께 보면서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는 사물이 지닌 진실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주체성과 개방성 가운데 권섭의 세계인식은 어느 곳에 방점

40) 權燮, <題咸興老婆可憐歌曲十五章後> (『玉所稿』 15, 「雜著」, 181쪽), “是翁八十七歲, 簿遊北路, 逢見八十七歲之老婆, 愛其文辭, 奇其名節, 有許多詩律詞翰, 婆必以歌曲酬之, 歸來再三詠嘆, 無非聘迎愛慕之辭, 而深恨其不反逢於少年時.”

41) 장정수, 「<鬮老婆歌曲十五章>을 통해 본 기녀 可憐의 내면 의식」, 『우리어문연구』 30, 우리어문학회, 2008 참조.

42) 權燮, 「散錄內篇」(『玉所稿』 7, 231쪽), “病惡緣也, 酒枉藥也, 而入於詩則好, 犬可憐也, 而聞其聲則惡.”

43) 權燮, 「散錄內篇」(『玉所稿』 7, 231쪽), “天下之至可愛者, 鶯鶴, 人尤可愛, 人之中親戚, 尤可愛, 天下之至可畏者, 蛇虎, 人尤可畏, 人之中親戚, 尤可畏.”

이 놓일까? 이 문제는 간단한 것이 아니지만 그의 도통론이나 화이론의 강도를 조사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즉, 권섭이 도통론에 관심을 가지고 일련의 시가를 짓지만 만년의 일이고, 구곡가 계열의 시가도 자연 묘사에 치중하고 있다. 경학 연구 또한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단편적이다. 이에 비해 그의 상상력은 원심력을 갖고 전방위적으로 개방되어 있었고, 사상적으로나 신분적으로, 혹은 예술적으로 확장되어 있었다. 노기 가련과의 거침없는 문학적 소통은 그의 개방성에 어떤 한계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우리는 권섭 세계인식은 주체성보다 개방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IV. 권섭의 영남관: 기령학적 회통성

그동안 영남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좌도와 우도로 나누어 이해해왔다. 강이 좌안과 우안을 나누는 경계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시대에 다양하게 나타난 바, <慶尙道左右州郡摠圖>⁴⁴⁾에서 영남을 좌우로 나누었던 것이나, 李灑이 강을 중심으로 퇴계학과와 남명학과를 나누고 이를 중심으로 영남을 尙仁主義學으로 요약한 것 등이 그것이다. 역사학자 이수건이 퇴계학과 남명학을 영남학과의 양대산맥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남학을 파악하고자 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⁴⁵⁾ 이러한 현상은 자연지리학과 정치철학의 측면을 고려할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측면에서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 강의 좌우를 넘나들고 상하를 오르내리면서 영남의 문화를 새롭게 생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강안학’이 그것이다.⁴⁶⁾ 이 학문은 회통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44) 『東興備攷』(영인본),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8, 79쪽.

45) 이수건, 『영남학과연구』, 일조각, 1995, 327-399쪽 참조.

46) 강안학의 기본 개념 및 특징에 대해서는 정우라, 「江岸學과 高靈 儒學에 대한 試論」, 『퇴계학과 유교문화』 4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을 참조할 수 있다.

데, 동서로 퇴계학과 남명학이 넘나들고, 남북으로는 기호학과 영남학이 오르내리며 새로운 영남학을 구상하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는 문경을 기점으로, 상주, 의성, 구미 등 낙동강 연안을 따라 내려간다. 성주의 정구·김우옹 등이 이황과 조식을 모두 스승으로 모시거나, 영남인 정경세가 기호인 송준길을 사위로 맞는 등에서, 이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것이 모여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권섭의 경우, 문경에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이 지니고 있는 강안학적 분위기를 흡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李縉(1680-1746)가 기호인으로 이황을 존승하면서도 문경 선유동에 鶴泉亭을 건립하고 그 후인들이 바위에 ‘南近興巖 西接華陽’이라 새기며 송준길과 송시열을 기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만년에 문경 화지동에 삶의 거점을 마련한 권섭에게서 이황과 조식을 중심으로 한 영남학에 관심을 보인 것은 발견되지 않지만, 기호와 영남의 관계 및 이에 대한 회통성에는 남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성향을 畿嶺學으로 명명한 바 있어, 이를 ‘이이→송시열→권상하’라는 도맥 속에서 발견되는 기호학인 권섭의 영남관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영남은 기호지역을 지키는 성곽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영남의 곳곳에는 방비하는 장수가 있으니 도적들이 멀리까지 쳐들어 올 수 없다고 보고, 만약 적이 죽령이나 조령을 넘어온다면 관군조차 필요가 없고, 마을 장정 수십 명으로 水回와 黃江 산허리의 좁은 길에 앉아서 돌을 쌓아 놓고 기다려도 된다고 주장했다. 조령과 죽령이 기호와 영남의 소통로 역할을 하지만, 이곳은 기호지역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선이자 최종 성곽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 지형의 유리한 곳으로는 洞仙嶺과 靑石洞의 좁은 길과 兎棧과 鳥嶺의 험로가 있다.”⁴⁷⁾라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다. 조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품을 지은 적이 있다.

47) 權燮, 「散錄內篇」(『玉所稿』 7, 173쪽), “我國地利, 有洞仙嶺靑石洞之隘, 有兔棧鳥嶺之險.”

鳥道盤天際 새재 길 하늘가에 서려있어
拚緣盡力還 험로를 힘 다해 돌아왔네
馬嘶雲半裡 말은 구름에 반쯤 빠진 채 울고
人語月中間 사람은 달 빛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누네
凍雪花疑樹 얼어붙은 눈꽃 나무에 엉기고
垂冰玉似山 드리워진 빙옥은 산과 같다네
歸來亭上坐 돌아와 정자 위에 앉았노라니
簾箔夢魂寒 드리운 주렴에 몽혼마저 차갑네⁴⁸⁾

“鳥嶺과 竹嶺은 우리나라의 요해지”⁴⁹⁾라는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군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권섭이 <鳥嶺山城修築祭文>에서 허물어진 산성을 수리하고, 이곳을 들어 ‘일국의 요새’⁵⁰⁾라며 군사적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위의 작품은 권섭이 조령의 험함을 노래한 것인데, “말은 구름에 반쯤 빠진 채 울고, 사람은 달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누네”라고 한 데서 그 험난함이 잘 묘사되어 있다. 또한 鷄立嶺[하늘재]에 대하여, “지세가 여기에 오르면 다시 넓게 트이고 열려서 위로는 하늘 속의 해와 달에 닿을 만하고 아래로는 세상 밖의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다.”⁵¹⁾라고 했다. 사람이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다. 별유천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만, 조령의 험함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둘째, 기호학의 뿌리는 영남에 있다고 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권섭은 도맥을 다양하게 나누며 사사로이 명호를 세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이이 같은 이가 나와야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대의 도맥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기호 지역에서는 권상하, 김창협, 이재, 송준길, 박세채가, 영남지역에서는 정

48) 權燮, <鳥嶺>〔『玉所稿』 15, 467쪽〕

49) 『宣祖實錄』 권66, 선조 28年 8月 14日條. “夫鳥嶺竹嶺, 我國之要害.”

50) 權燮, <鳥嶺山城修築祭文>〔『玉所稿』 8, 394쪽〕, “爲勢作一國之控扼” <遊伽倻山記>〔『玉所稿』 14, 「遊行錄」 2, 203쪽〕에서도 “鳥嶺, 爲國之咽喉控扼.”이라 하였다.

51) 權燮, <花枝九曲記>〔『玉所稿』 4, 「文」 4, 493쪽〕, “地勢登此復豁然而開, 上可接天中日月, 下濛濛然世外雲煙.”

구가 모두 이황을 연원으로 한다고 보았다.⁵²⁾ 이 가운데 권상하, 김창협, 이재, 송준길은 모두 이이를 거쳐 이황으로 거슬러 오른다고 했다. 서인들이 이이 못지않게 이황을 존숭한다는 것을 보여, 기호학의 뿌리가 영남학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권섭의 기령학적 회통성을 간파할 수 있다. 그러나 기호와 영남은 간극이 없을 수 없었다. 다음 자료를 보자.

周濂溪가 “움직여서 양을 낳고 고요하여 음을 낳는다.”고 말한 것에 주자가 ‘生字’를 삭제한 것은 주렴계가 미처 점검하지 못했던 부분을 주자가 점검한 것일 뿐이니 어찌 주렴계가 적다고 하겠는가.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퇴계에게 율곡이 있는 것은 주렴계에게 주자가 있는 것과 같다.”고 한다.⁵³⁾

권섭은 우리나라의 도학은 설총과 정몽주에 의해 시작되어 이황에 이르러 크게 밝혀졌고, 이이에 이르러 大成하였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이의 리기설을 들었다. 즉, 이이가 말한 “물의 모양은 네모나거나 둥근 그릇을 따라 만들어지고 공간의 크기는 크고 작은 병을 따라 정해진다.”, “사물이 있는 곳을 환하게 비춘다,” “발하는 것은 氣이고 발하게 하는 것은 理이다.”라고 한 것은 모두 이황의 말을 이이가 확충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주돈이의 미비점을 주희가 확충해 완성시켰듯이, 이황의 리기설을 이이가 확충해 완성시켰다는 것이다. 이황이 중요하기는 하나 조선성리학의 완성자는 기호사람 이이로 본 것이다.

셋째, 영남의 도통은 이황을 거쳐 정구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우리는

52) 권섭의 이황에 대한 숭모는 매우 극진하였다. 학문에 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언행에 대한 점검도 『퇴계인행록』을 보면서 했다. 「산록」에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아내의 자매가 홀로 되어 의지할 데가 없는 경우 이 자매를 자신의 집에 거두어들이는 것은 혐의가 있는 것이라 말하고, “나중에 『퇴계인행록』을 보고서 다 행히도 내 견해가 선현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여기 기록한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53) 權燮, 「散錄內篇」(『玉所稿』 7, 247-248쪽), “濂溪曰, 動而生陽, 靜而生陰, 而朱子去生字, 是朱子點檢於濂溪之所未點檢耳, 豈可以此少濂溪哉! 吾則曰, 退溪之有栗谷, 正如濂溪之於朱子也.”

흔히 이황의 도맥을, ‘이황→김성일’, ‘이황→류성룡’, ‘이황→정구’로 파악한다. 그러나 권섭은 이 가운데 마지막의 것만 인정하였다. 이는 아마도 김성일 학파가 서인 노론에 적대적이었다는 점, 류성룡 학파가 송준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스스로는 ‘송시열→송준길’이 아니라, ‘송시열→권상하’의 노선을 정통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이황→정구’ 노선에서 정구는 서인 李植에 의해 “영남의 下道에서도 더 이상 학자가 나오지 않게 된 가운데, 오직 寒岡 한 사람만이 完人이라고 할 수 있다.”⁵⁴⁾라는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정구는 노론 사이에서 널리 인정받았으니,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구를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점을 인식하면서 다음 자료를 보자.

(가) 무휼사에 도착하니 성주의 늙은 유생 李湑가 일찌감치 그곳에 와 있다가 정성스레 맞으며, ‘이 절은 寒岡 선생께서 만년에 오셔서 집을 지어 승려들에게 살며 지키게 하여 중이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관되어 있는 서책이 거의 두 채에 가득하며 철쭉지팡이와 필적도 아직까지 남아 있지만, 열쇠를 가지고 있는 후손이 멀리 살아서 열어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여 안타까웠다. … 이층으로 된 둥근 못이 바로 절 앞에 있어 열 번째 곡이 되는데 이른바 飛雪橋가 아래 못 위에 걸쳐 있고, 다리 북쪽에는 쌓아 올린 단이 있어 소나무와 전나무가 그늘을 드리우니 한강 용께서 쉬었다는 곳이다.⁵⁵⁾

(나) 쌍계사 골은 맑은 시내와 푸른 바위가 수십 리에 걸쳐 뻗어 있는데, 立巖이 가장 빼어났다. 내가 나라 안의 이름난 절경을 많이 보았으나 여기에 비길 것은 많지 않으니, 그 구체적인 아름다움을 따지자면 금강산의 萬瀑洞, 속리산의 兵川도 조금 양보해야 할 것이다.⁵⁶⁾

54) 李植, <示兒代筆>(『澤堂別集』 권15), “嶺之下道, 亦無學者, 唯寒岡爲完人.”

55) 權燮, <遊伽倻山記>(『玉所稿』 14, 「遊行錄」 2, 189-190), “到武屹寺, 星州老儒生李湑, 先已在其中, 出接款語云, 是寺則寒岡先生, 晚來卜築, 使緇髡居守之所, 而因仍爲僧舍, 今其書冊之藏于此者, 幾充二棟, 而又有躑躅杖, 手澤猶在, 其鑰匙付後孫, 在遠不得啓示云, 可恨. … 又二層圓潭, 正在寺前, 而爲第十曲, 所謂飛雪橋, 跨在下潭上, 橋北有壇築, 松檜蔭之, 寒岡翁所憩也.”

56) 權燮, <遊伽倻山記>(『玉所稿』 14, 「遊行錄」 2, 203쪽), “雙溪寺一洞, 清川碧石, 連亘數十里, 而立巖最奇絶, 余見國中名泉石多矣, 少有與此相埒者, 若論其具體之美, 則金

권섭은 영남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정구의 만년 강학처인 연경서원을 심방하면서 예를 표하기도 했다. 특히 가야산 기행에서는 정구의 가야산 유산록과 비슷한 여정으로 답사를 하면서, 정구의 무흘구곡 일부를 찾는다. 쌍계사, 김공폭포, 무흘사[무흘정사], 청심대[수송대], 입암이 바로 그것이다. 위의 자료 (가)는 정구가 62세(1604, 선조 37)에 강학과 수양을 위해 건립하였던 무흘정사에 대한 기록이며, (나)는 무흘구곡 가운데 제4곡인 입암을 특기한 것이다. (가)에서는 권섭 방문 당시의 무흘정사 사정을 알 수 있고, (나)에서는 입암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 즉 금강산의 만폭동이나 속리산의 병천보다 낫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 역시 이황이 기호학의 원천이며, 영남에서는 정구가 그 도통을 이었다는 의식이 이면에서 작동한 결과라 하겠다.⁵⁷⁾

넷째, 영남 기행은 화지장을 중심으로 하여 문경, 영남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승려처럼 떠도는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며 온갖 산천을 떠돌아다녔던 권섭의 기행벽은 화지장 시대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노년 생활의 거점이 문경의 화지장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영남 기행은 더욱 확대되어 갔을 것이다. 28간의 집을 지어 그 일곽을 花枝莊이라 하고, 여기에 대한 그림을 그리거나, 화지구곡을 설정하여 시문을 남기거나, 화지장에 대한 평을 하는 등⁵⁸⁾ 이와 관련된 매우 다양한 글을 썼다.⁵⁹⁾ 문경지역으로의 공간 확장은 <聞慶諸勝記>에 잘 나타나고,⁶⁰⁾ 그

剛之萬瀑，俗離之兵川，亦似少讓焉。”

57) 권섭이 가야산을 기행하면서 홍류동도 답사하게 되는데, 이때 가야의 孚飲亭 등 정인홍의 유적은 찾지 않았다. 정인홍이 복인으로 노론과는 정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58) 權燮, 『玉所稿』 9. 『亭閣錄』 1의 <花枝莊(圖)>, <花枝莊二十八間(圖)>, 『玉所稿』 4, 「文」 4의 <花枝九曲記>, <花枝十評> 참조.

59) 이밖에 화지동과 관련된 작품으로는 <聞慶花枝洞二十九>를 비롯해서, <花枝洞見急雨中大瀑曰阿弟亦說我惡石否>, <花枝洞稷券序>, <花枝洞對吟>, <花枝洞訪玉所翁>, <花枝洞詩>, <花枝洞神祭恒用祝辭>, <花枝洞次韻>, <花枝仙案>, <花枝莊庭碑小銘>, <花枝莊獻書>, <花枝莊獻次崔來伯韻>, <花枝祖父主自山寺歸>, <花枝和呈> 등이 있다.

60) 권섭의 손자 권신응은 문경십경을 지정해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제1경 輝映閣, 제2

의 여행 범위는 다음과 같이 영남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 (가) 오는 길에 우복의 무덤에 참배하였고, 공검지에서 통나무배를 타고 놀다가 매학정에 올랐는데, 외삼촌께서 금호강까지 나와 맞아 주셔서 낮에 감영에 들어갔으니 9월 7일이었다. 나흘을 머물다가 동생 중온과 함께 팔공산에 올랐다. 배가뭇을 지나 신승점을 모신 표충사와 효자 서시립을 모신 향현사에 참배하고 소년대를 지나 동화사에 이르러 여러 불전과 금당을 두루 보고 부도암에서 묵었다.⁶¹⁾
- (나) 하회에 이르러 상봉정, 점암, 옥연서당에 올랐는데, 류씨는 어떤 인물이기에 이런 빼어난 절경과 유명한 장소를 소유하게 되었을까? 배를 타고 입암을 거슬러 병산서원에 도착하니 서원은 서애를 배향하고 있었는데, 만대루 아래에서 申丞과 이별하고 돌아왔다.⁶²⁾
- (다) 덕천서원에서는 세심정과 취성정에 올라가 한 줄기의 맑은 시내를 굽어보니 한가한 정취가 있었다. 환아정의 짜임새는 교묘하였는데 경치가 자못 상쾌하여 달밤에 일어나 옷을 입고 홀로 올라가 앉아 어진 주인과 마주한다면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금 흥겨운 마음이 들게 할 것이다.⁶³⁾

권섭의 산수유람에 대한 기록은 <유행록>에 남아 있다. 23차례의 기록에 영남지역 여행은 8차례 정도이고,⁶⁴⁾ 여기에는 화지장 일대의 유람

경 交龜亭, 제3경 陽山寺, 제4경 內仙遊洞, 제5경 外仙遊洞, 제6경 蜂岩, 제7경 憑虛梯, 제8경 龍遊洞, 제9경 九郎湖, 제10경 鳳生川이 그것이다. 이 그림은 금강산, 동해 등의 嶺東列景, 丹丘8景 등과 함께 『暮景興寄帖』에 실려 있다.

- 61) 權燮, <南行追記>(『玉所稿』 14, 「遊行錄」 3, 270쪽), “歷拜伏伏羲, 乘槽舡, 泛于恭檢池, 歷登梅鶴亭, 舅氏出迎于琴湖江, 午入營中, 是九月初七日也. 留四日, 與仲蘊上八公山, 過裴家池, 拜申崇謙表忠祠, 孝子徐時立鄉賢祠, 過少年臺, 到桐華寺, 周觀諸佛殿及金堂, 宿浮圖庵.”
- 62) 權燮, <南行追記>(『玉所稿』 14, 「遊行錄」 3, 276쪽), “到河回, 登翔鳳亭漸菴玉淵書堂, 何物柳氏, 有此絕勝名區也? 乘舟沿洄于立巖, 到屏山書院, 院享柳西厓, 與申丞分手于晚對樓下而還.”
- 63) 權燮, <嶺南錄>(『玉所稿』 14, 「遊行錄」 3, 351쪽), “德川書院, 登洗心亭醉醒亭, 俯臨一帶澄川, 可是清閑趣意, 換鵝亭結構巧妙, 景致殊爽, 月夜穿衣而起, 獨居登坐, 若得賢主人而對坐, 必令人尤有興情.”

에 대한 기록도 2회도 포함되어 있다. 전국 각지에 친인척이 목민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遠遊가 가능하였다. 글쓰기 형식이 일정하지 않고, 기술 역시 산만하지만, 대체로 일정대로 기록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조목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가)처럼 경험한 일이나, (나)처럼 빼어난 경관이나, (다)처럼 자신이 본 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하였다. 특이한 점은 유람 지역의 풍속이나 관련 인물의 사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영남 민생이 당하는 고초에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경화사족 권섭의 산수벽에 대한 성격 역시 파악하게 된다.

권섭은 조령과 죽령이 조선의 요새로 보고, 영남지역이 기호지역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학문적으로 기호학은 이황에게 그 연원이 닿아 있고, 이황의 영남학맥은 정구를 통해 구현된다고 보았다. 이 같은 생각은 정구가 이이 형제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그의 학문이 기호학과 일정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영남 내적으로는 무흘정사 등 정구의 유적에서는 무한한 경모심을 드러내지만, 류성룡의 유적이 있는 하회에서는 류성룡의 업적보다 자연의 빼어난만 강조하였다. 일정한 차등의식을 보여주었다. 이황이 기호학의 뿌리가 되지만 이이가 등장해 집대성했다는 발상에서도 기호학에 그의 강조점이 놓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기령학적 회통성을 지니면서도, 기호학과 영남학 사이에는 일정한 경중을 두었다는 것이다.

V. 맺음말

본고는 옥소 권섭의 세계인식과 영남관을 해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권섭의 세계인식은 방대한 그의 작품이 창작될 수 있었던 사상적 근

64) 권섭이 일생동안 전국을 유람한 것은 <유행록>과 <자술년기>에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일목요연하게 표로 제시한 작업은 홍성욱, 「권섭의 山水 遊記 研究」, 『국제어문』 36, 국제어문학회, 2006에서 이루어졌다.

거가 된다. 이를 통해 작품에 작동하는 이면 원리 역시 간파할 수 있다. 권섭은 그 스스로가 말하고 있듯이 옹주와 재상의 집에서 경화사족의 문화풍토 속에 성장하였다. 그러나 기사환국과 신임사화로 커다란 좌절을 맞본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볼 때, 그는 대체로 현실순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기록벽과 기행벽을 갖고 산수에 탐닉하였다. 권섭은 현실정치가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의 주요 관심사는 오히려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의 취미생활에 있었다.

권섭의 세계인식은 주체적 개방성으로 요약된다. 도통론과 화이론으로 대변되는 그의 주체성은 자기 세계 속으로 매몰되지 않고 사상적으로는 유불도가 상호 공존하고 신분적으로는 중인이나 천인도 포용하였다. 이것은 권섭의 세계인식이 어느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때로는 기쁨과 슬픔 등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것을 하나의 작품에 배치시키는데, 그의 세계인식이 함유하고 있는 주체적 개방성이 인간의 진실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계인식은 주체성과 개방성 사이에서 개방성이 강조된다. 권섭의 문학과 예술의 개성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권섭의 작품에는 기호학과 영남학이 서로 소통하는 기령학적 회통성 또한 잘 나타난다. 그의 영남관은 이로써 확인이 가능하다. 그는 기호인이었기 때문에 우선 영남은 기호지역을 방어하는 성곽 역할을 하며, 죽령과 조령의 험함이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고 했다. 기호학이 영남학에 뿌리를 두지만 그 완성은 결국 기호학이 담당했다고 보고, 영남지역에는 이황의 도맥을 이은 정구의 학문을 크게 인정하였다. 이 역시 낙동강 연안지역의 학문인 강안학, 그 가운데서도 기령학적 회통성을 감안한 결과이다. 특히 그가 영남지역을 유람하면서 보인 일련의 경향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남의 인물이나 민생의 고초보다 아름다운 자연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권섭 사유의 중요한 부면을 파악할 수 있다.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해보자. 첫째, 권섭의 세계인식은 개방성에,

영남관은 기호학의 맥락 속에 초점이 놓인다. 권섭의 세계인식은 주체성과 개방성을 공유하지만 개방성 우위의 주체적 개방성이라 할 수 있다면, 영남관은 기호학 우위의 기령학적 회통성이라 할 수 있다. 권섭은 분명 성리학자였지만 그의 작가적 재능은 그를 여기에 제한시킬 수 없었다. 즉 성리학적으로 그의 주체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 마땅한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기호학의 뿌리가 영남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개화는 이이의 학문을 근간으로 하는 기호학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그가 개방적 사유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호학적 한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완전한 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둘째, 권섭의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학문적이라기보다 문학적이며, 사변적이라기보다 낭만적이다. 권섭은 현실의 부조리를 생각하면서 출사와 퇴처를 깊이 있게 따진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平澹보다 古奇의 미의식을 추구하였으며 산수 품평은 매우 정밀하게 하고 있지만, 어떤 사물에 대한 시비를 가리거나 그 원리를 찾는 論說類 문체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 어려서부터 『사기』를 중심으로 문장공부를 하지만, 경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논어』와 『맹자』 등에 대한 경학적 접근이 보이지 않는 바 아니나 단편적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그의 문학적 혹은 작가적 성향은 오히려 더 부각된다.

셋째, 권섭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기보다 생활소사에 대한 관심에 더욱 충실했다. 권섭의 생애를 일별하면 그 자신이 경화사족이었지만 기사환국, 신입사화 등으로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예각화될 수도 있었다. 거둬되는 가족의 불행과 과거의 낙방은 권섭과 세계와의 불화구도를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현실비판적 자세를 취했다기보다 현실순응적 자세를 보였다.⁶⁵⁾ <자술묘명>에서 스스로를 ‘性直’, ‘氣

65) 권섭은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길을 달리했던 것은 분명하나,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세상과 절연한 듯하지만 과장에 또한 나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기도 한다. 즉, 그가 과장에 나아갔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淸’, ‘心休’라 평가하였는데, ‘성직’과 ‘기청’이 현실의 부조리를 타개하는데 활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산수벽과 기행벽으로 나타났다. 그의 최대 관심사는 ‘심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에서 추구할 수 없는 ‘심휴’는 꿈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다. 몽기와 몽화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넷째, 권섭의 예술가적 성취는 전문적이라기보다 호사가적 취미에 그쳤다. 사물에 대한 철학적 관심은 관물찰리의 이념적 인식을 통해, 사회적 관심은 관물찰세의 역사적 인식을 통해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권섭은 이에 대해 심각하지 않았다. 『옥소고』에 존재의 의미를 따지는 철학적 논설과 사회를 해부하는 역사적 문제의식이 적은 이유이다. 그러나 그는 사물을 관찰해 서술하는 관물찰형의 즉물적 인식은 매우 뛰어났다. 시문학과 산문 등에 보이는 묘사의 사실성과 회화에 보이는 진경 산수화풍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 문제는 그것의 예술적 성취여부이다. 비전문적 아마추어리즘의 범주에서 평가할 수밖에 없다⁶⁶⁾는 윤진영의 발언에 공감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진전된 논의를 기다린다.

권섭의 삶과 사유에는 주체성과 개방성 사이, 기호학과 영남학 사이, 세속과 초월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은사, 고사, 신선 등으로 조롱까지 받으면서 과거장에 나아갔으니,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서 권섭은 科場仙이었고, 그를 地上仙이라며 칭송하던 사람들에게서는 세정을 떨치지 못한 涕泣仙이었다. 초연하게 사는 듯 보이지만 공명을 취하기 위하여 과거장에 나아갔고, 도처에 여행하며 인간세상을 잊은 듯하지만 세정에 집착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의 세계인식이 주체성과 개방성 사이에서 개방성으로, 영남관이 기호학과 영남학 사이에서 기호학으로 귀결되지만, 권섭은 언제나 중간자적 존재로 흔들리고 있었다.

권섭은 자신의 중간자적 존재에 대하여 <欲書墓表後而不書>에서 이렇

‘隱士가 오셨네’, ‘高士가 오셨네’, ‘神仙이 오셨네’(『散錄外篇』 2, 461쪽)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66) 윤진영, 「옥소 권섭의 그림 취미와 회화관」, 『18세기 예술사회사와 옥소 권섭』, 다운샘, 2007, 185쪽 참조.

게 말했다. “승려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며, 어중간한 위치에서 이처럼 살다가 이처럼 죽는다면, 내 죽은 다음에 누가 있어 다시 나를 알아주랴. 다만 작은 묘표석에 百趣翁이라고만 하고 성명은 쓰지 않는다.”⁶⁷⁾ 중간자적 성향을 그 스스로 적실하게 표현했다. 그의 호 백취옹의 ‘백취’에서도 우리는 어느 하나에 정착하지 못하는 천재의 방향을 읽는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기록벽과 산수벽을 지닌 채 온 산천을 떠돌며 마음대로 글을 쓰게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 이 논문은 2022년 1월 3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3월 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67) 權燮, <欲書墓表後而不書>(『玉所稿』 5, 「墓山誌」 2, 370쪽), “非僧非俗, 半上落下, 如是而生, 如是而死, 死後誰復知者, 但書小表石, 曰 百趣翁, 不著姓名.”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東輿備攷』(영인본),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8.
『宣祖實錄』
權 燮, 『玉所稿』 17책(영인본), 도서출판 다운샘, 2007.
李 植, 『澤堂別集』
문경새재박물관 엮어 옮김, 『(옥소 권섭의 유행록) 삼천에 구백리 머나먼 여행길』,
민속원, 2008.
이창희 역, 『내 사는 곳이 마치 그림 같은데-옥소의 꿈세계』, 도서출판 다운샘,
2003.
이창희·장정수 역, 『옥소 산록』, 도서출판 다운샘, 근간.

2. 연구논저

- 박요순, 「玉所 權燮의 詩歌 研究」, 東國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86.
박요순, 「옥소연구」, 『한국언어문학』 14, 한국언어문학회, 1976.
박요순, 「옥소의 가사연구」, 『국어국문학』 84, 국어국문학회, 1981.
신경숙 외, 『옥소 권섭과 18세기 조선 문화』, 다운샘, 2009.
신경숙, 「옥소 권섭의 음악경험과 18세기 음악환경」, 『18세기 예술사회사와 옥소 권섭』, 다운샘, 2007.
이상원, 「〈도통가〉와 〈황강구곡가〉 창작의 정치적 배경」, 『한민족어문학』 43, 한민족어문학회, 2003.
이수건, 『영남학파연구』, 일조각, 1995.
이창희 외, 『18세기 예술사회사와 옥소 권섭』, 다운샘, 2007.
이창희, 「옥소 권섭의 한시 비평 고찰-「散錄」을 중심으로-」, 『영남학』 7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장정수, 「〈飜老婆歌曲十五章〉을 통해 본 기녀 可憐의 내면 의식」, 『우리어문연구』 30, 우리어문학회, 2008.
장정수, 「〈黃江九曲歌〉의 창작 배경 및 구성 방식」, 『시조학논총』 21, 한국시조학회, 2004.

- 장정수, 「『玉所散錄』의 특성과 자료적 가치」, 『영남학』 7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 정 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 정우락, 「16세기 사림과 작가들의 사물관과 문학정신 연구-임훈·이황·조식의 경우를 중심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34,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4.
- 정우락, 「江岸學과 高靈 儒學에 대한 試論」, 『퇴계학과 유교문화』 4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 조성산, 「玉所 權燮(1671~1759)의 學風과 現實觀」, 『東洋學』 4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7.
- 최은숙, 「옥소 권섭의 『遊行錄』에 나타난 대상체험의 양상과 유람의 의미」, 『영남학』 7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 최호석, 「옥소 문집의 서지적 고찰」, 『국제어문』 36, 국제어문학회, 2006.
- 최호석, 「玉所의 문집 편집 구상과 石印本 『玉所集』의 간행」, 『영남학』 7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21.
- 홍성욱, 「권섭의 山水 遊記 研究」, 『국제어문』 36, 국제어문학회, 2006.

Okso(玉所) Gwon Seop(權燮)'s Perceptions of the World and Viewpoint of Yeongnam

Jeong, Woo-lak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ain Okso Gwon Seop(1671-1759)'s perceptions of the world and the viewpoint of Yeongnam. He grew up in a family of a princess and prime minister amid the culture and climate of distinguished Gyeonghwa nobility, but he suffered a huge frustration after Gisahwanguk and Sinimsahwa. Throughout his history, he generally kept an attitude of conforming to reality and was indulged in mountains and rivers according to his passion for recording and traveling. He did not show much interest in issues around the direction of real politics, and his main interest was in his hobby life involving writing and painting.

Gwon Seop's perceptions of the world are summarized in independent openness. Represented by the Dotong and Hwai theories, his independence prevented him from being buried in his world and made him embrace the mutual coexistence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ideologically and that of Jungins and lowly men in the social ranks. His works well reflect the Giryeonghak-based Hoitongseong of communication between Giho and Yeongnam studies. This shows his viewpoint of Yeongnam. Believing that Giho studies were rooted in Yeongnam studies and eventually completed Yeongnam studies, he recognized highly the studies of Jeong Gu that inherited Lee Hwang's Domaek in the Yeongnam region.

His wandering between independence and openness, between Giho and Yeongnam studies, and between the mundane world and transcendence is often found in his life and thinking. He went to take the state exam, being bombarded with such ridicules as a hidden scholar, clean scholar, and Taoist hermit with miraculous power. He was a Gwajangseon to those who criticized him and a Che-eup-seon that could not leave the affairs of the world behind to those who admired him as a Jisangseon. His perceptions of the world ended in openness rather than independence, and his viewpoint of Yeongnam ended in Giho studies rather than Yeongnam studies, but he was always shaking as a middle being between them. The shakes seem to have made him wander in mountains and rivers.

keywords :

Okso Gwon Seop, perception of the world, viewpoint of Yeongnam, independence, openness, Hwai theory, Dotong theory, Giho studies, Yeongnam studies, middle being

